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혁신' 나선다

선제 대응 '혁신추진TF팀' 신설
사업 분야 생산·경제성 제고 중점
성과 중심 기관 운영 체계 확립도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기여할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대내외 기관혁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혁신추진 전담조직(이하 혁신추진TF팀)을 신설 운영한다.

콘진원은 혁신추진TF팀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혁신 분야는 콘진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생산성, 경제성 제고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혁신추진TF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22년 기준 총 5,471억 원의 예산으로 178개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콘진원이 이 중에서도 확실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강화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 전략 개편과 민관 협업과제의 적극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직혁신을 통해 성과 중심 기관 운영 체계를 확립, 공공부문의 효율·생산성 극대화 및 함께하는 조직문화 확립 등을 통해 조직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콘텐츠 분야 규제 개혁 추진을 통한 제도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 '문턱 낮추기'와 함께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으로서 경영·사업 전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에도 주력한다.

앞서 콘진원은 나주와 서울에 위치한 임원 업무공간을 콘텐츠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 기관장의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공공부문 혁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혁신추진TF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12월 예정인 '2023년 지원사업설명회'에서 혁신추진TF 운영 결과보고회를 병행해 국민과 업계에 혁신추진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새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기관 혁신 활동을 통해 내부 역량을 높이고, 국민과 업계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한전-기상청, 전력·기상 융합 서비스 공동개발

데이터 활용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자연재해 설비피해 예방체계 구축

한국전력과 기상청은 12일 전력과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력·기상 융합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력·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 향상 공동 연구개발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전력·기상 데이터 공유 및 국민 체감형 융합서비스 개발 등이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전력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역량과 기상청의 맞춤형 고해상도 기상기후정보를 결합한 전력·기상 융합 콘텐츠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한전과 기상청은 작년 12월부터 전력 및 기상 빅데이터 융합 및 분석을 통해 여름철 아파트 구내 전력설비 과부하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전력사용량 예측 AI 서비스' 개발에도 나섰다.

한전은 이를 통해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와 관리사무소가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일 최대 전력사용 시간대와 전력사용량 예측 및 신속한 대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한전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기상청의 맞춤형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설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기상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상청·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식에서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왼쪽)과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또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 융합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KISA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 19일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오는 19일 '2022 블록체인 밋업(Meetup)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앞으로 펼쳐질 웹 3.0시대의 블록체인, NFT의 역할을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 기술 트렌드 및 정책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NFT는 미술을 비롯한 스포츠,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행되며 폭넓게 거래되는 등 블록체인 분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에 KISA는 이번 행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이 NFT를 거래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등 신뢰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신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 등 기술 발굴 및 공유에도 나선다.

컨퍼런스 기조연설에는 부산대 김호원 교수가 ▲웹 3.0, 블록체인과 미래사회 전망을 주제로 한 연설을 시작으로 3개 섹션 11개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섹션은 ▲웹 3.0 시대 블록체인 동향 ▲NFT 신뢰성 확보 ▲NFT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 등 총 3개다.

방문이 어려운 참석자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농어촌공사, 재난관리 '우수'

예방·대비·대응 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안전관리 분야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 355곳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와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공사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ESG경영을 도입하는 등의 경영방침 수립을 통해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사의 ▲안전진단 강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교육 강화 ▲현장중심의 재난훈련 ▲재난관리자 맞춤형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안전 챗봇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및 현장 관계자에게 법령, 정책, 사례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담당자가 보다 정확하게 안전을 실천하게 했다는 평가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이번 평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의 경영방침과 직원들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사학연금, 임대료 인하 연장

공실률 증가 예방·지역 상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학연금 보유센터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한다.

사학연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 시작부터 임대료 35%를 인하, 같은 해 6월부터는 50%로 인하율을 높이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했다. 그 결과 사학연금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체 총 26곳에 총 9억 3,9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임차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차인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사학연금은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50%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학연금 주명헌 이사장은 "코로나19와 변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